

손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2016년 제1차 회원총회 자료집

-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후 7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6 정기총회 식순

- 총회의장 : 이수호 (손잡고 공동대표)
- 사회 :

-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 보고
 3. 의장 인사말
 4. 손잡고 1기 보고
 - 손잡고 제1기 사업 보고
 - 손잡고 제1기 결산 보고
 5. 안건 상정 및 승인
 -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2호 의안 : 대표 선출의 건
 - 제3호 의안 : 운영위원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 손잡고 2기 사업계획(안)
 - 제5호 의안 : 손잡고 2기 사업예산(안)
 - 제6호 의안 : 기타 의안
 6. 공지사향
 7. 폐회선언

- 목차 -

손잡고 1회총회 식순	---	1
손잡고 1기 활동보고		
1. 조직소개	---	4
2. 활동목표	---	6
3. 조직활동보고	---	7
4. 전체사업보고	---	10
5. 사업시행경과보고	---	11
6. 항목별 사업결과	---	13
7. 전체사업 평가	---	34
8. 활동일지	---	40
손잡고 1기 결산보고		
1. 손잡고 CMS 모집 및 회비사용에 대한 보고	---	49
2. 손잡고 1기 수입보고	---	50
3. 손잡고 1기 사업비계좌 지출보고	---	51
총회 안건 상정 및 승인		
1. 정관 개정의 건	---	55
2. 대표 선출의 건	---	64
3. 운영위원 선출의 건	---	64
4. 2016년 사업계획(안)	---	64
5. 2016년 예산(안)	---	68
6. 기타 안건	---	69



손잡고 1기 활동보고

1. 조직소개

1) 단체명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손잡고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이다. 2014년 2월 26일 시민사회 각계각층 550명의 제안자와 함께 출범했으며, 같은 해 4월 16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 운영조직

- 공동대표

- 조은(상임대표)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학회 회장
- 고광현 : 전 한겨레 신문사 대표. 전 인권재단 대표
- 이수호 : 전태일재단 이사장,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 조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운영위원

- 박래균 :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서해성 : 소설가
- 은수미 : 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좌세준 : 변호사
- 하종강 :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 한홍구 :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사무처 : 석미화, 윤지선

- 회원 : 제안자 550명, 후원회원(일시후원포함) 495명

3) 활동위원회

- 손잡고기금심의위원회

- 김두식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남기철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수호 :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 이숙이 : <시사인> 편집국장
- 좌세준: 변호사
-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강성태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문대 : 민변노동위원회, 변호사
 - 김진 : 변호사
 - 김태욱 : 변호사
 - 도재형 : 변호사
 - 유상철 : 노무사
 - 은수미 : 손잡고 운영위원
 - 조국 : 손잡고 공동대표
- 손잡고법제도자문위원회
 -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송영섭 : 금속노조법률원장
 - 좌세준 : 변호사
 - 최종연 : 변호사
 - 허진민 : 변호사
- 노동현장간담회참여단위
 손배피해사업장 16곳 참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유성, 기아차사
 내하청, 현대자동차비정규직, KEC, DKC, 상신브레이크, 동양시멘트, 철
 도, MBC, 고려수요양병원, 스타케미칼, 생탁)

4) 업무협약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2014년 2월~2015년 11월)
 손잡고는 2014년 2월 26일 출범했다.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공간, CMS프로그램 등 실무지원을 했다.
- 아름다운재단(2014년 4월~2016년 1월)
 손잡고는 2014년 2월 시작된 <노란봉투캠페인>의 사업 주관단체로 아름다운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금을 담당했으며, 손잡고는 아
 름다운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집행을 담당했다.

2. 활동목표

1) 목표

- 파업 및 노동쟁의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위기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을 한다.
- 법률적 해소를 목적으로 손배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개정 활동을 비롯해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주요과제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당사자들 증언대회와 사례 기록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들 지원
-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사회적 의제화 활동(기고, 토론회, 공청회 등)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 운동
- 다양한 공동행동 계획들 : 손잡고 캠페인
 - 19대 국회 법안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공동 캠페인
 - 모의 법정, 플래시몹, 옴니버스 영화, 동영상 제작
 - 손배가압류 많이 하는 나쁜 기업에 빨간딱지 붙이기!

3. 조직 활동보고

1) 1기 운영위원회 활동 : 2014년 3월~ 2015년 11월

① 주요활동 내용 : 조직정비 및 사무처 구성, 노란봉투캠페인 관련 사업 기획 및 사업 승인, 활동위원회 구성, 손배소가압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기고, 강연, 손잡고 자체모금활동 기획 및 승인

② 1기 정기 운영위원회의 : 19차 진행

- 2014.03.14. 초동제안자 조찬모임, 향후 사업계획을 위한 체계와 조직정비.
- 2014.03.28. [운영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의
- 2014.04.08. [운영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의
- 2015.04.25. [운영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의
- 2014.05.09. [운영위원회] 4차 운영위원회의
- 2014.05.22. [운영위원회] 5차 운영위원회의
- 2014.06.13. [운영위원회] 6차 운영위원회의
- 2014.06.26. [운영위원회] 7차 운영위원회의
- 2014.07.23. [운영위원회] 8차 운영위원회의
- 2014.08.22. [운영위원회] 9차 운영위원회의
- 2014.09.19. [운영위원회] 10차 운영위원회의
- 2014.10.16. [운영위원회] 11차 운영위원회의
- 2014.11.20. [운영위원회] 12차 운영위원회의
- 2014.12.22. [운영위원회] 13차 운영위원회의
- 2015.01.20. [운영위원회] 14차 운영위원회의
- 2015.03.19. [운영위원회] 15차 운영위원회의
- 2015.05.07. [운영위원회] 16차 운영위원회의
- 2015.07.07. [운영위원회] 17차 운영위원회의
- 2015.09.01. [운영위원회] 18차 운영위원회의
- 2015.10.20. [운영위원회] 19차 운영위원회의

- ③ 1기 긴급 운영위원회의 : 2차례 진행
 - 2015.07.16. [운영위원회] 긴급운영위원회의(1차)
 - 2015.08.04. [운영위원회] 긴급운영위원회의(2차)

2) 이수호 대표 체제 운영 : 2015년 8월 ~ 2015년 11월

- ① 긴급운영위원회의 2차 회의결과(2015.08.04.)에 따라 “손잡고 운영위원회가 두 달 동안 손잡고 업무를 컨트롤 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이수호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
- ② 정기운영위원회의 18차 회의결과(2015.09.01.)에 따라 “2기 출범 전까지 이수호 대표가 운영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재확인.
- ③ 주요활동 :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마무리, 기간 내 손잡고 활동에 대한 승인 및 실행, 윤지선 활동가에 대한 재고용.

3) 2기 준비를 위한 임시대표단 : 2015년 12월~2016년 3월.

- ① 목적 : 손잡고 1기의 인큐베이팅을 담당한 평화박물관의 인큐베이팅 종료. 이에 따라 손잡고 자체운영시스템 마련 및 평화박물관과의 행정처리 마무리를 위한 임시대표체제 구성.
- ② 임시대표단 구성 : 은수미, 서해성, 조국.
- ③ 주요활동 내용 : 평화박물관과의 업무마무리를 위한 논의, 2기 조직정비(대표와 운영위원 추천), 임시체제 내 손잡고 활동에 대한 승인 및 실행. 총회결정 및 총회소집.
 - 2016.03.10. 2기상임대표로 배춘환 회원 추천.
 - 2016.03.12. 임시대표단-신임 상임대표 예정자 배춘환 임시회의 : 2기 운영위원 추천(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서해성, 안진걸, 윤지영, 은수미, 이남신, 조국, 좌세준 이상 10인)

4) 2기 손잡고 출범을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의 : 2015년 3월 23일~ 4월 25일

- ① 목적 : 2기 출범 및 운영위 승인을 위한 총회 준비.
- ② 구성 : 2기 운영위 예정자 : 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서해성, 안진걸, 윤지영, 은수미, 이남신, 조국, 좌세준.
- ③ 주요활동 내용 :
 - 2016.03.23. [임시회의] 2기 운영위 예정자 1차 임시회의
: 임시대표단의 2기 운영위 추천에 대한 수용
 - 2016.04.07. [임시회의] 2기 운영위 예정자 2차 임시회의
: 총회의장 이수호 공동대표 선출
 - 2016.04.20. [임시회의] 2기 운영위 예정자 3차 임시회의
: 정관 및 내규검토, 독립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논의

5) 사무국 구성

- ① 손잡고 준비모임-초동모임 : 2013년 12월~2014년 2월
 - 이선옥, 박점규, 이창근 참여 : 제안자 모집 및 출범준비
- ② 손잡고 1기 사무국 : 2014년 3월~2015년 10월
 - 평화박물관 인큐베이팅 및 손잡고 활동가 별도채용.
 - 사무처장 : 인큐베이팅을 담당하던 평화박물관의 석미화 사무처장이 겸직.
 - 담당 활동가 : 별도채용(2014년 4월~5월 손잡고 홈페이지 공고), 2014년 6월 윤지선 활동가 채용.
- ③ 평화박물관 인큐베이팅 종료결정 :
 - 석미화 사무처장 손잡고 겸직 종료
 - 윤지선 활동가 해고 : 2015년 10월.
- ④ 손잡고 활동가 재고용 : 2015년 10월 12일~
 - 이수호 공동대표와 윤지선 활동가 고용계약
 - 현재 고용계약되어 있으나 행정신고 미이행 : 2기출범 후 행정신고 마무리

4. 전체사업

항목구분	사업내용	시기	비고	
모금활동	노란봉투캠페인	2014.2~2014.5	아름다운재단 협약	
	서울시기부금모집등록	2014.7~2015.7	자체모금	
	후원회원모집 CMS	2014.4~	자체모금(평박지원)	
지원 활동	손배 피해 가구 개별 지원	2014노란봉투캠페인손배피해가구 긴급생계의료비지원(1차/2차)	2014.5~2014.10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손배피해가구 자녀교육비지원	2015.12~	성심수녀원 연계
		기타지원 떡국바구니 나눔행사 2회	2015.2 2016.2	CMS회비 +사랑의 친구들 연계
	현장 지원	고공농성1년문화제	2015.4	CMS회비 +운영위원 후원
		연극출장공연(유성)	2015.5	
		투쟁사업장 기금지원	수시	
		기타(기자회견, 성명 등)	수시	
	법률개선활동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015.5~2015.8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 일부 CMS회비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2014.4~2015.4		
입법공청회/심포지엄		2014.10		
손잡고법제도자문위원회(비정기)		2014.12~		
노동현장간담회(정기)		2014.12~		
손배피해증언대회		2015.10		
학술/연구	손해배상 및 가압류 현황 백서	2014.10~2015.10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생계의료비지원가구실태조사	2015.6~2015.9		
홍보문화활동	제1회손잡고연극제	2014.8~2014.12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연극 '노란봉투' 재공연	2015.4~2015.5	연우무대연계 + 일부 CMS회비	
	광장행사 / 퍼포먼스	2015.7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1차배분사업결과발표행사	2014.6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영상기록 다큐 '여기 사람있어요'	2015.2~2015.10	+ 일부 CMS회비	
기고활동	한겨레토요판 손잡고 기획 등 기고	수시	-	
연대활동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2014.11	CMS회비	
	유성기업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사회대책위원회	2015.11~		

5. 사업시행 경과보고

1) 사업시행경과

사업시행과정에서 기금의 집행과 관련된 실무의 영역을 제외하고 세부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획과 사업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외부참여를 유도했다. 단, 손잡고가 기획과 결과물 생산하는 과정 전반을 독자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대중적 참여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완수했다.

손잡고는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가급적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자 했다. 용역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별로 손잡고 운영위원과 실무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해 사업시행과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책임졌다.

2) 외부 전문가 참여

실무전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손잡고가 주도한 경우 구체적인 사업실행을 위해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 유입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손잡고 내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완수했으며, 위원회에는 반드시 손잡고 내부 운영진이 참여하고 실무담당자를 배석했다.

① 손잡고 기금심의위원회

법학, 사회복지학 전공교수 등 관련 학계 인사와 변호사, 언론인 등 기금심사에 필요한 외부인사를 영입했다. 손잡고 내부에서는 이수호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구성 : 김두식 교수(법학), 남기철 교수(사회복지학), 이수호 대표, 이숙이 시사인 편집장, 좌세준 변호사

②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손잡고 내부에서는 조국 공동대표와 은수미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 구성 : 강성태 교수, 도재형 교수, 조국 대표, 은수미 운영위원, 김진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유상철 노무사, 민주노총(참관)

③ 손잡고 법제도자문위원회

좀 더 광범위한 자문을 위해 노동법전문가 외에도 헌법, 행정법 등 관련법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유입했다. 손잡고에서는 좌세준 운영위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구성 : 박경신 교수, 박경신 교수, 송영섭 변호사, 좌세준 운영위원, 최종연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3) 용역계약에 의한 시행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결과물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전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완수했다. 이 경우에도 손잡고 운영위원이 기획 단계에 참여하고, 담당실무자가 진행과정과 결과보고에 참여했다.

① 실태조사 : 긴급생계의료지원을 받은 32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주)현대리서치에 의뢰했다. 조은 손잡고 대표가 기획 및 조사설계 과정에 참여했다.

② 백서 : 르포작가 이선옥과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기록과 편찬을 일임했다. 한홍구 운영위원이 기획에 참여했다.

③ 손잡고연극제 : 극작가, 연출, 기획, 배우를 비롯해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티켓판매 단기인력에 이르기까지 진행 전반을 대학로 공연 예술가들과 함께 했다. 공동제작을 맡은 극단 해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협업했다. 한홍구 운영위원이 기획에 참여했다.

④ 광장행사-퍼포먼스 : 광장행사는 시청광장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퍼포먼스는 대중참여를 기반으로 기록을 남겨 이를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것이 주요 기획내용이다. 따라서 기획과 연출, 콘텐츠 가공 및 유통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섭외, '농담기획&농담영화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완수했다. 서해성 운영위원이 기획에 참여했다.

6. 항목별 사업결과(* 결산내역 별도)

■ 모금활동

1) 노란봉투캠페인

- ① 아름다운재단 협업 : 2014년 주간지 <시사인>의 독자 배춘환 씨가 47억 배상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의 기사를 접하고, '상상도 안 되는 액수이지만 10만명이 4만 7천원을 낸다면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는 편지와 함께 4만7천원의 돈을 <시사인>에 보냈다. 그 편지가 불씨가 되어 '노란 봉투캠페인'이 시작됐다. 아름다운재단은 모금을 집중해서 하고, 손잡고는 손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서로 공동사업의 관계를 맺었다.
- ② 시기 : 2014년 2월 10일~2014년 5월 31일
- ③ 결과 : 시민 4만7547명이 참여해 총 14억6874만1745원을 모금
- ④ 사용 : 손잡고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노란봉투캠페인 전체모금액에서 모집비용을 제외한 사업비의 약 90%를 사업비로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1,179,358,190원을 노동쟁의로 인해 손해배상과 가압류 중인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하는 '피해구제사업'에 사용하고, 126,477,250원을 법률개선을 위한 활동에 사용했다.

2) 서울시 기부금모집등록

- ① 손잡고 자체모금 : 모금명칭 - 노동법알리기 학술문화캠페인
- ② 모집시기 : 2014년 8월 11일 ~ 2015년 7월 31일
- ③ 결과 : 목표액 1억원 가운데 58,684,966원 모금
- ④ 사용 : 아직 미사용, 제2회 모의법정경연대회, 제2회 손잡고연극제에 활용할 계획

3) CMS후원회원 모금

- ① 손잡고 자체모금 : CMS 프로그램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지원
- ② 모집시기 : 2014년 4월 ~ 2016년 5월(이후 자체 CMS 개설 예정)
- ③ 결과 : 2015년 12월 회원 수 495명(일시후원 포함).

■ 지원활동

1) 2014노란봉투캠페인 손배피해자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본 사업은 손잡고, 시사IN,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진행한 2014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의 일환이다.

① 대상 : 파업 및 노동쟁의로 인해 손배소 또는 가압류에 걸려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중 2013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그 중에서도 소속 노동조합(단위노조가 불가능할 경우 소속 상급단체노조)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② 진행시기

-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1차 : 2014년 5월 1일(목)~2014년 7월 7일(월)
 - 접수 : 2014년 5월 1일(목)~5월 23일(금) 자정까지
 - 심사 : 2014년 5월 28일(수)~2014년 6월 13일(금)
 - 결과발표: 2014년 6월 18일(수) / 결과발표행사 : 2014년 6월 19일(목)
 - 1차지원사업비 수령 : 2014년 7월 1일(화)
 - 집행기간 : 2014년 6월 23일(월)~2014년 7월 7일(월)(집행완료)
-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2차 : 2014년 8월 25일(월)~2014년 10월 24일(금)
 - 접수 : 2014년 8월 25일(월)~2014년 10월 2일(목)
 - 심사 : 2014년 10월 6일(월)~2014년 10월 14일(화)
 - 결과발표 : 2014년 10월 15일(수)~2014년 10월 17일(금)
 - 2차지원사업비 수령 : 2014년 10월 17일(금)
 - 집행기간 : 2014년 10월 20일(월)~2014년 10월 24일(금)(집행 완료)

③ 심사 및 지급기준

- 심사위원 : 손잡고 기금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본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부, 피해당사자나 가구원 중 중증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여부,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현재 수입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여부를 심사했다.

- ④ 지원결과 : 총 329가구에 1,165,938,424원 배분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4,892,460원(4인가족 이상 A등급)부터 최소1,206,806원(D등급)을 받았다.
- 1차지원 : 총 140가구 신청, 그 중 손배대상 아닌 3건을 제외한 137가구에 519,285,694원 배분.
 - 2차지원 : 총 193가구 신청, 그 중 손배대상 아닌 1건을 제외한 192가구에 646,652,730원 배분.
 - 사업장별 구분 : 총 15군데 손배가압류 해당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그 외 쟁의활동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같은 손배청구 및 가압류 판결을 받은 개별 피해사례도 11건 있었다. 특히 2차 지원사업은 사측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상급단체 조합원이나 지역시민사회 활동가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손배가압류 피해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평택 인근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상급단체 조합원이 그 대상이었으며, 유성기업 쟁의활동에 대한 연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모두 피해 노동자와 같이 억대의 손배 청구로 고통을 호소했다.

2) 손배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본 사업은 손잡고 후원처 가운데 하나인 성심수녀원과 협업했다.

- ① 대상 : 손배가압류 피해사업장 가운데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 ② 진행시기 : 2015년 11월 4일~ 11월 18일
- ③ 지급기준 : 노동현장간담회 공지 후 각 노조에서 대상자 추천을 통해 신청서 제출하도록 했다. 손잡고는 신청서를 취합해 성심수녀회에 전달했다. 성심수녀회는 지원 선정된 학생의 학교에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학비지원을 받고, 대학생은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④ 지원결과 : 총 7명 지원
 - 고등학생 1학년 4명, 2학년 1명.
 - 대학생 2명.

3) 설 떡국바구니 나눔 행사

본 사업은 ‘(사)사랑의친구들’과 함께했다.

- ① 대상 : 손배가압류 피해가구 가운데 해고자, 다자녀 가구.
- ② 진행시기 : 2015년 2월 12일 / 2016년 2월 2일
- ③ 지원결과 : 총 155개 바구니 전달
 - 2015년 설 150개 바구니 전달
 - 2016년 설 추가 손배대상에 5개 바구니 전달

4) 연극인들과 함께하는 스타케미칼 굴뚝농성 1주년 문화제

행사명 : “연대는 자기 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 ① 기획 : 이양구 및 대학로 연극인
- ② 시기 : 2015년 5월 26일 밤 10시부터 27일 자정
- ③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④ 내용 : 2015년 5월 27일,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1년을 앞두고, 연극인들과 함께 마로니에공원에서 자정문화제를 진행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량으로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다.
- ⑤ 결과
 - 참여인원 : 70명 추산
 - 후원 : 후원금은 스타케미칼 후원기금으로 전달
 - 모금합 : 81,000원
 - 참여연대 200,000원

5) 기타 현장지원

- ① 손배소 노동현장 관련 기자회견 : 총 11회
- ② 손배소 관련 성명서 발표 : 총 4회
- ③ 투쟁기금 및 후원금 전달 : 총 10회

■ 법률개선을 위한 활동

1)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1st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본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노란봉투캠페인 법제도개선사업의 일환이다.

① 참여

- 주최 : 손잡고,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한국ILO협회,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소개
 - 집행위원장 : 조국(손잡고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 집행위원 : 고광현, 박래군, 서해성, 이수호, 조은, 하종강, 한홍구
 - 간사 : 김영중(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윤지선(손잡고)
 - 문제출제위원 : 강성태(문제출제위원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형(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송영섭(금속법률원)
 - 재판부 : 김선수(재판장/ 변호사), 김진(변호사),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석환(명지대 법학과 노동법 교수), 최유정(변호사,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최은배(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② 모의법정 경연대회 목적

- 손배가압류에 대해 실제 법리를 다루어 봄으로써 법의 적용과 해석 등 방향을 모색한다.
- 특히 예비법조인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 갖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장차 정의로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효과에도 주력한다.
- 모의법정 현장을 기록하여 2차 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③ 대상 :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④ 경연대회 일정

- 개최 공고일 : 2015년 5월 20일 (수)
- 신청접수 : 2015년 5월 20일 (수) - 2015년 6월 10일 (수)
- 문제공고일 : 2015년 6월 중순
- 변론서 접수기한 : 2015년 7월 15일 (수)
- 서면심사발표 : 2015년 8월 5일 (수)
- 경연대회 본선 및 결선 : 2015년 8월 22일 (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⑤ 주제 : '쟁의 행위를 사유로 한 노동자 손배소'

- 변론핵심 : △파업, 직장 점거 등 쟁의 행위의 정당성, △1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의 적정성, △노동권의 관점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한 정당성 등을 놓고 변론하도록 했다.

⑥ 경연대회 결과

경연결과 총 16개 팀이 신청접수했으나, 서면준비과정에서 1팀이 중도포기해 총 15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서면심사를 통해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시상은 최우수상(한국ILO협회상) 200만 원, 우수상(국회법제사법위원장상) 100만 원, 장려상(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상) 50만 원 2팀, 개인MVP 50만원이 수여됐다.

⑦ 경연대회 진행에 대한 평가

- 참여도 : 노동법을 주제로 한, 특히 손배소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최초의 시도였다. 첫 대회에서 16팀 접수는 타 모의법정 경연대회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참여도인 것으로 평가받았다(실제 같은 시기 개최된 경총이 주최한 기업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8팀 참여로 진행되기도 했다).
- 목표 달성 : '노동법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ی겠다'는 개최지는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회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소감을 받은 결과 이번 대회를 통해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손해배

상 및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예비법조인과 손배피해노동자의 만남 : 이날 현장에는 실제 손배청구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참석해 결선을 방청했다. 함께 주최를 맡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쌍용차지부와 철도노조,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 가장 많은 손배소 사업장이 소속된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결선 현장을 찾았다. 방청소감을 통해 이들은 '변론을 듣는 내내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다'며 소회를 밝혔다. 예비 법조인들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노동자들을 보며 현실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⑧ 향후 과제

- 대회 진행방식 개선
 - 서면제출 시간 부족 : '노동법'이 필수과목이 아닌만큼 서면준비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문이다. 소장 답변서 제출 후 변론서 제출로 인해 변론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 대회 내부절차 안내 보완 : 각 경연 진행과정 별로 내부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해당 시기에 맞게 공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접근성에 대한 보완 요구 : 모의법정 방청을 위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준비해 방청신청 시 미리 공개하는 등 보완이 요구된다.
- 대회참가자 확대 : 좀 더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이력에 도움을 줄 만한 요소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ILO사무총장상의 유치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경영대회에 대한 후원을 확대해 상금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2)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

- ① 목표 : 파업 후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가하는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률, 노동전문가, 학계, 국회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관련법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② 주요활동

- 법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간담회(2014.4.~9.) 10회
- 입법공청회(2014.10.31.) 기획 및 실행
- 법안 자문요청 및 심의(2014.11.~12.)
-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운동(2015. 1.~ 발의시) 12,700여명 청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 법률안 발의(2015.4.)

③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취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취지 강화
 - 조합원과 가족,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
 -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적정기준 마련
 - 영국사례처럼 손해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제한
- 결과 : 2015년 4월, 19대 국회에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④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운동

- 진행시간 : 2015.1.28.~2015.4.6
- 결과 : 온-오프라인을 통해 12,700명 시민참여.

⑤ 입법공청회 :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 노동자 손배가압류 입법론, 해석론에 대한 공동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31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 주관 : 손잡고, (사)노동법연구소 해밀, 은수미, 전해철 의원실 공동주최
- 내용 :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가 비공개간담회에서 논의한 노조법 개정 방안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⑥ 평가 및 향후과제

- 시민이 발의한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은 시민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노란봉투캠페인 모금은 1년여에 걸친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의 큰 후원이 되

었고, 결국 시민 한 명 한 명이 보낸 4만7천원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 학계, 노동계, 법률전문가와 국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 :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뜻을 모아 참여해, 이전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시민참여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향후 면밀한 평가를 통해 20대 국회에 ‘노란봉투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3) 손잡고 법제도자문위원회

①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서 ‘항소인지대가 없어 소송을 포기해야할 지도 모른다’며 손잡고에 자문을 구해왔다. 이에 손잡고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배청구소송으로 인해 2차적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② 주요활동

- 인지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자문위원회의(3차례)
- 정보공개청구 : 2013년, 2014년 인지대의 수입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공개토론회 개최(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③ 토론회 : 인지대와 재판청구권(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주최)

- 일시 : 2015년 10월 27일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 입법목적인 남소방지보다 헌법적 권리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청구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 대안으로, ▲ 인지제 상한제를 도입 ▲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정액제 도입 ▲ 노동사건과 행정사건의 경우 헌법원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부분적 재판무상제도를 도입 ▲ 개별소송의 특성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인지제도 감액 및 면제제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기존에 제시된 방안으로는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014년 제출한 '300만원 인지액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지법 개정안이 재논의됐다.

④ 평가 및 향후과제

- 인지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막기 위한 후속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공동주최로 참여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인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손잡고는 주요 재판청구권 침해 사례인 노동현장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해 관련문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법제도자문위는 해산하지 않고 노동현장의 요구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 구조활동을 펼치도록 한다.

4) 노동현장간담회

① 목적

- 손배피해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현장간담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상황공유를 통해 가능한 모든 손배사업장이 긴박한 재판진행 과정에서 시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노란봉투캠페인 사업 전반을 현장에 공유하고 '노동'과 '시민' 하나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
- 노동현장 피해사례를 발굴해 기록하고, 2차 콘텐츠로 가공해 대중에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린다.

② 정기모임 : 2014년 12월 ~ 최근까지 총 11차 간담회 진행

③ 노동현장간담회 참여 사업장 : 민주노총, 금속노조, 철도노조,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부산지역일반노조(생탁),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KEC지회, 스타케미칼지회, AVO카본코리아지회, 유성기업지회, 기아자동차사내하청분회, 동양시멘트지부 등 참여

④ 주요활동

- 매 1회 노동현장간담회 진행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대응
- 노동현장인터뷰를 통한 미니다큐 제작
- 손잡고가 주관하는 법제도개선활동 및 문화공연에 참여
(ex_손배피해증언대회 주도,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운동, 모의법정 방청, 손잡고연극제 깜짝 출연 등)

⑤ 평가 및 향후과제

- 시의 적절한 대응 가능 : ‘손배소 가압류’는 전체 노동현장에 비해 피해사업장이 특정되어 있어, 노동이슈에서 뒤로 밀리거나 노동계 대응에서 주요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기도 해 벌어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노동현장간담회는 손배소라는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피해자 집단과 이를 지원하고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용이한 조건을 갖췄다. 매달 1회 노동현장 재판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각 노동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했다. 선고 전 성명서, 탄원서 조직, 기자회견, 재판소식과 결과에 대한 보다 빠른 전달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 손잡고가 파악하지 못했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을 간담회를 통해 소개받기도 했다.
- 노동현장과 시민 사이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 노동현장간담회는 노란봉투 캠페인 법제도개선사업 전반을 현장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는 창구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손잡고는 노동현장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법제도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동의절차, 또는 의견수렴과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손배가압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문화공연에 노동현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노동’과 ‘시민’ 하나되는 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 기록으로서의 가치 : 노동현장간담회와 ‘노동현장인터뷰’를 통해 발굴한 노동현장 피해사례는 그 자체로도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본다. ‘노동현장인터뷰’는 미니다큐로 제작해 노동현장별 사안에 따라 홍보자료로 온라인에 배포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 손잡고는 앞으로도 노동현장간담회를 통해 손배소 피해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5) 손배피해증언대회

“당신의 어깨를 툭툭, 노란봉투 툭툭(talk talk)”쇼(이하 툭툭쇼)

①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② 목적 :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들이 만든 ‘노란봉투의 희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법 개정의 심장인 국회에서 진행한다. 여야 지도부와 손배가압류 문제 관련 상임위에 노란봉투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의 편지를 전달해 참여를 독려해 19대 국회가 마무리된 후에도 ‘노란봉투법’ 입법 등 손배가압류 문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약속받고 기록으로 남긴다. 방송을 제작해서 대안매체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방송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③ 제작진 소개

- 제작 : 손잡고
- 기획 :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연출 : 김성진(나누크)
- 작가 : 고희갑(MBC스페셜 등)
- 촬영 : 박정남, 김한구, 이광석
- 영상 음향 : 이우리
- 진행 : 다이나믹썸, 유애리
- 뮤직비디오 편집 : 김제훈
- 삽입영상 : 박정남, 송윤혁
- 영상자료 : 미디어빠꼭,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 웹툰 그림-글 : 조남준-김은희
- 엔딩공연 : 조동희
- 방송제작 : 국민TV

④ 평가

- ‘토크쇼’ 방식을 취하며, 손배가압류의 피해사례와 제도적 모순을 보다 알기 쉽게 구성해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이후 국민TV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켰다.
- ‘노란봉투법’ 발의 후 경과를 소개하고, 법률전문가와 정치계 인사를 통해 ‘법개정’이 왜 중요한지, ‘입법’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모색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부터 손배소문제 해결에 대한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받았다.
- ‘노란봉투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향후 노동이슈에 대처하는 ‘시민의 역할’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했다.

■ 학술 / 연구조사 활동

1) 백서 : 손해배상과 가압류 백서

- ① 활동기간 : : 2014년 10월~2015년 10월
- ② 집필 : 르포작가 이선옥과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기록과 편찬을 일임했다.
 - 이선옥 : 2010년 제18회 전태일문학상 기록문부문 장편에 당선
[주요작품] 전태일문학상수상집 <그대 혼자가 아니랍니다>, 여전히 싸우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섬과 섬을 잇다>, 용산참사 이야기 <여기 사람이 있다>, 장애인의 권리 이야기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공동집필
- ③ 기획편찬 : 손잡고에서는 이수호 공동대표가 발행인을 맡았고, 한홍구 운영위원이 기획에 참여했다. 손잡고 운영위원회가 감수했다.
- ④ 주요 활동 내용
 - 손배가압류 역사 : 손배가압류 흐름과 대응, 정권별 손배가압류 현황, 연표정리, 언론보도 모음 및 분석, 2015년 손배가압류 현황 집계
 -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 손잡고 소개, 노란봉투캠페인 소개

2) 실태조사 <2014노란봉투캠페인 지원가구 실태조사>

- ① 활동기간 : 2015년 6월~9월

- ②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 연구원 정경아, 최형주
- ③ 기획편찬 : 조은 손잡고 공동대표가 기획 및 조사설계 과정에 참여했다.
- ④ 주요 활동 내용
 - 노란봉투캠페인 1,2차긴급생계의료지원을 받은 32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내용 : 현재 손배가압류 현황, 재직상태 및 경제상태(주거, 소득), 노란봉투캠페인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가구실태 및 추가지원의 필요성
 - 진행경과 : 연구조사설계 및 질문지 : 6월 / 조사기간 : 7월 / 자료처리 및 분석 : 8월 / 결과보고 : 9월
 - 조사방법 :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6개 사업장(상신, 쌍용자동차, 스타케미칼, 유성, 현대차비정규직지회, KEC)의 각 담당자를 통한 우편조사 진행 후, 기타 사업장 및 우편조사 미회수 대상자는 전화조사로 진행)

■ 홍보 및 문화공연, 캠페인 활동

1) 제1회 손잡고연극제

① 개최의도

-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연극무대로 옮겨 사회에 알리고,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공연예술이다.

'손배가압류'는 극소재로 다뤄진 바 없다는 점에서 '손배가압류'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는 방식을 '연극인'과 '관객'으로 넓힌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학로 젊은 연출가를 중심으로 대중이보다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코드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이해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한다.

순수창작극을 올리고자 한다. 결과물로 남은 극대본을 통해 추후 재가공 및 재공연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누린다.

② 용역계약에 의한 시행

연극은 공연사업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설계부터 구성원 섭외, 연극 공연기간 홍보관리, 그리고 이후 정산까지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획과 공연관리가 가능한 극단과 용역계약을 맺어 사

업을 완수했다. 손잡고 운영위원과 기획에 참여하고, 담당활동가가 공연 외 실무를 담당했다.

③ 제1회 손잡고 연극제 제작참여 극단

제1회 손잡고연극제는 ‘극단 해인’(대표 이양구)과 함께했다.

④ 주요활동

▶ 프로그램 1. 신종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을 위한 세미나

[1차 세미나]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14년 9월 22일(월) 15:00 예술공간 서울
- 강사 :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 내용 :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실태와 부당함을 사회법과 시민법의 원리를 비교하고 각국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2차 세미나] 한국 현대사와 노동자의 삶

- 일시 장소 : 2014년 10월 6일(월) 16:00 이해랑 예술극장
- 강사 :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수)
- 내용 :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3차 세미나] 정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 헌법적 기본권 행사가 범죄가 되는 현실 비판

- 일시 장소 : 2014년 10월 27일(월) 15:3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 강사 :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 :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판례를 살펴본다. 투표권과 같이 노동권도 기본권이므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권에 대해 체득하고 행사하듯, 노동권에 대해 경험과 행사도 중요하다.

▶ 프로그램 2. 현장답사 :

- 2014년 11월 3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방문
- 2014년 11월 4일 SJM 안산공장 방문

▶ 프로그램 3. 공연 : 연극 <노란봉투>

- 2014년 11월 25일~2014년 12월 14일 3주간 총 21회 공연
- 장소 :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55석 규모)
- 제작진
 - CAST : 안병식, 김민선, 조시현, 백성철, 김민하, 양정윤, 윤미경
 - STAFF: 작 이양구 | 연출 전인철 | 조연출 이연주 | 무대디자인 박상봉 | 조명디자인 최보윤 | 의상디자인 최윤희 | 음악감독 박민수 | 홍보영상 정병목 | 분장 장경숙 | 그래픽디자인 김 솔 | 사진 이성주
- 연극 <노란봉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가 하위법인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형법에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되어서, 노동자들이 파업 과정은 물론 파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알린다.
- 공연 후반부 깜짝 장면으로 전국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방문한다. 공연이 끝난 후 수시로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여해 관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관객과의 대화에는 조은, 고광현, 조국 등 손잡고 운영위원들도 함께 한다.
- 관객과 연극인이 손잡고 손배 가압류 문제의 개선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자발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⑤ 연극 <노란봉투> 결과

- ▶ 총 관객 수 : 1,012명(유료관객 722명+초대 290명), 2주차부터 전석 매진.
- ▶ 노동현장 깜짝출연 참여
 - 역할 : 극 말미, 고공농성을 결심하는 '병로'를 응원하러 연대방문 차 농성장을 찾는 역할, 1분 간 응원메시지와 함께 사업장 손배상황을 전달함.
 - 출연 : 21회 공연 중 19회 깜짝출연, 투쟁사업장 노동자 16명, 정치인 2명, 시민사회단체인사 1명 출연, 특히 투쟁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고공농성 유경험자가 5명이며, 고공농성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심경을 관객들에게 알렸다.
 - 명단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 김정옥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홍종인 유성기업 지회장,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신순애 청계피복 조합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강성덕 씨앤엠 조합원(고공농성 중 전화연결),

문기주 쌍용차 평택지부정비지회장, 김선교 금속노조 대협국장,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마경아-정선헌 씨앤앰 조합원, 이성주 MBC노조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병승 현대차지부 조합원

▶ 관객과의 대화

- 1차(2014.11.30.) 한홍구 운영위원, 좌세준 변호사, 유기수 민주노총
- 2차(2014.12.7.) 이수호 대표, 은수미 의원, 문기주 쌍용자동차지부
- 3차(2014.12.14.) 조은 대표, 배춘환 노란봉투캠페인 제안자,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최병승 현대차지부

▶ 수상

- 2015년 2월 27일 제3회 레드어워드 수상
- 2015년 12월 28일 한국연극베스트7 선정

⑥ 연극 <노란봉투> 재공연 : 극단 <연우무대> 제작 참여

- 제작진 동일, 극단 <연우무대>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손잡고는 공동기획 및 실무에 참여했다.
- 공연시기 : 2015년 4월 5일~ 2015년 5월 12일 총 48회 공연

⑦ 향후 계획 : 제2회 손잡고 연극제를 위한 준비

- 제1회 손잡고연극제는 전체예산 1,500만원을 모두 소진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했음을 알게 되었다. 연극 <노란봉투>는 실제 극장후원 600만원(현물후원)을 혜화동1번지 동인5기로부터 지원받아 총 2,1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며, 전체예산을 벗어나 지출된 경우는 티켓수익을 통해 보전했다.
- 따라서 제2회 손잡고연극제는 적어도 2,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제1회 손잡고연극제에 참여한 연극팀은 연극 <노란봉투> 티켓수익 가운데 극단에서 선지출한 제작비를 회수하고 남은 수익금 500여만원에 대해 배우개런티를 포기하고 제2회 손잡고연극제를 위해 손잡고에 적립했다.

손잡고는 이를 기부금모집등록 통장에 입금했으며, 2016년 제2회 손잡고연극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시민과 함께하는 노란봉투 콘서트(이하 '노란봉투캠페인 콘서트')

① 용역계약에 의한 사업시행

- 기획 / 실행 : 농담기획&영화사농담(이하 '농담기획') : 광장행사는 시청광장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기록해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것이 주요 기획내용이다. 따라서 기획과 연출, 콘텐츠 가공 및 유통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섭외해 사업을 완수했다. 손잡고에서는 서해성 운영위원이 기획에 참여했다.

② 공연개요

- 타이틀 : 손배소가압류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란봉투콘서트
- 일시 : 2015년 7월 18일(금) 19:30 ~ 21:10
- 장소 : 서울 시청 광장 광복의 문 70 특설무대
- 출연 : 안치환과 자유, 윤미진, 우리나라, 세월호 가족(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416합창단, 최광기, 배춘환, 박준우, 라혜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등

③ 기획배경

-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참여시민과 더불어 많은 시민이 함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 마련
- 노래 공연을 중심으로 한 여름밤의 문화행사를 통해 손배 가압류 문제를 포함해 노동탄압과 세월호 등으로 상처받은 우리사회를 위로함
- 노란봉투법 홍보 및 국회통과를 위한 시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④ 결과

- 관람인원 : 약 500여명
- 공연 당일 낮부터 비가 오는 날씨와 휴가철이 겹쳐 관객 동원이 우려되었으나 예상보다는 양호한 결과로 보임

3) '노란봉투캠페인 퍼포먼스'

① 용역계약에 의한 사업시행 :

- 기획 / 실행 : 농담기획&영화사농담(이하 '농담기획') : 퍼포먼스는 대중참여를 기반으로 기록을 남겨 이를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것이 주요 기획내용이다. 따라서 기획과 연출, 콘텐츠 가공 및 유통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섭외, '농담기획&농담영화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완수했다. 서해성 운영위원이 기획에 참여했다.

② 기획의도

“노란봉투캠페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시민의 힘을 보여준 노란봉투캠페인 후원금이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선활동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널리 알림
- 기 진행된 노란봉투캠페인 입법청원운동의 연장선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시민참여 홍보 일환으로 기획
- 법률적 개념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쉽고,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도 상승의 장 마련

③ 노란봉투캠페인 오프라인 퍼포먼스 사업 기간

- 퍼포먼스 기획기간 : 2015. 7. 1 ~ 17
- 오프라인 퍼포먼스 실행기간 : 2015. 7. 18 ~ 30
- 오프라인 퍼포먼스 기록물 제작기간 : 2015. 7. 31 ~ 9. 7
- 오프라인 퍼포먼스 기록물 온라인 게재 : 2015. 9. 8 ~

④ 결과

- 총 10회의 퍼포먼스 진행
 - 노란봉투 우체통 설치 퍼포먼스 2회
 - “세상에서 가장 큰 봉투. 노란봉투!” 3회
 - 노란봉투 우편배달부 활동 5회
-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토) 서울시청광장, 노란봉투캠페인 콘서트
- 7월 25일(토) 광화문 세월호 광장, 촛불문화제
- 7월 28일(화) 광화문 교보문고 앞
- 7월 29일(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7월 30일(목) 국가인권위원회 앞

4) 1차배분결과발표행사 : ‘노란봉투, 희망을 나누다’

- <2014 노란봉투 캠페인>, 손편지 주인공과 함께하는 손편지 토크

① 목적 : “첫 번째 노란봉투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1차지원사업결과 137가구에 5억 2천여만원을 지원, 이 같은 결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캠페인에 편지를 보내 동참한 4만 7천명의 시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한편, 생계의료비지원사유 가운데 손배가압류 피해가 잘 드러나는 사례를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노란봉투캠페인 법제도개선사업에 대한 관심 재환기시킨다.
- 손편지토크쇼를 통해 노란봉투 시즌2 예고 및 동력으로 삼음

② 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

서울시민청 B2 바스락홀

③ 참여

- 스텝 : 총괄 : 석미화, 윤지선 / 무대음향,조명 : 조민혁 / 사진 : 정택용 / 영상 : 심아람 / 부대행사<손편지 전시> 담당 : 유애리 / 무대진행 : 김남수, 홍혜린 / 입구관리 : 최아라
- 출연 : 사회 : 김미화 / 이야기손님 : 배춘환, 임경선(작가), 성심여고 이예린, 박준우(마스터셰프), 박준상(대학생), 꽃피는학교 라혜원 / 축하공연 : 성미산어린이합창단.

④ 행사 구성

- 모금결과, 배분사업, 노란봉투캠페인 손편지 소개

- 1차배분사업결과발표 “노란봉투 희망을 나누다”
- 노란봉투캠페인에 동참한 시민과 함께 “노란봉투 희망을 말하다”
- 노란봉투캠페인 손편지 사연 소개 “희망에 날개를 달다”

■ 기타

1) 기고활동

- [14.01.22 경향신문] 계속 ‘살(殺)노동’ 사회로 갈 것인가 - 조국 대표
- [14.07.19 한겨레 토요판] 진보하는 야만에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한
홍구 운영위원
- [14.08.16 한겨레] ‘세월호’에 탄 파업노동자를 구조해주세요 - 조국 대표
- [14.09.02 주간경향 1091호] [비상식의 사회]파파가 떠난 자리, 우리의 몫이다 -
이수호 대표
- [14.12.02 한겨레][기고]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 이수호 대표
- [14.12.02 한겨레][기고]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 이수호 대표
- [15.02.26 한겨레] [시론] 함께 살자고요, 손잡고! - 한홍구 운영위원
- [15.02.26 오마이뉴스] 잃어버린 의경 군화까지 배상... 그들은 ‘동네북’이었다 -
윤지선 활동가
- [15.04.03 오마이뉴스] 매일 550만 원 물어내란다... 그래도 포기 못해 - 윤지선
활동가
- [15.04.17 오마이뉴스] 세월호를 기억하는 당신, 이 연극 어때요 - 윤지선 활동
가
- [15.08.17 오마이뉴스] 70억? 158억? 손배청구금액, 어떻게 결정될까 - 윤지선
활동가

2) 연대활동

- ①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 2014년 11월
- ② 유성기업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사회대책위원회 : 2015년 11월

7. 전체사업 평가

손잡고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손배가압류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손배가압류의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다양한 문화기획과 연구조사를 펼쳤다.

‘노란봉투캠페인’과 함께한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

손잡고가 노란봉투캠페인 기금을 통해 추진한 세부 사업은 가짓수만 해도 13개에 달한다. 총 사업기간이 1년 7개월임을 감안하면 짧은 시기 다양한 영역에서 손배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펼친 것을 알 수 있다.

1년 동안 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제도개선에 매달린 결과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사업기간 내 국회에 발의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 '손배가압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침해되어 발생하며, 따라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현실임을 알림으로서 그동안 '피해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있던 손배가압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로 진행한 연극, 퍼포먼스, 방송제작 등 다양한 문화기획들은 관심을 받기 어려운 '노동이슈'를 알려내는 문화콘텐츠의 영역을 확대시키기도 했다.

무엇보다 손배가압류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한시적이거나 각 가정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면할 수 있는 긴급처방이 되었다는 점에서 2014노란봉투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손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의 원동력, 시민의 ‘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2014 노란봉투캠페인>모금운동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시도를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금역사상 노동이슈를 주제로 가장 큰 금액이 모였다고 평가되는 14억7천여만원의 노란봉투캠페인 모금의 성과다. 손배 피해가 인정된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업비의 90%에 달하는 11억7천만 원의 초기예산 때문이다. 또한

사업비의 10%인 1억3천8백여만원으로 짧은 시간내에 '법안'을 만들고,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손배가압류 역사와 현황에 대한 기록'도 남길 수 있었다.

손잡고는 국내 최초 손배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기구다. 단체가 출범하자마자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던 사회적 의제를 두고 숨가쁘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손잡고의 '손'을 잡아준 많은 시민의 힘도 컸다.

손잡고의 가장 큰 재원은 바로 500명의 제안자, 즉 인적재원이다. 신뢰할 만한 불들로 기금심사위원회를 꾸렸고, 법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모두 자발적으로 나섰다. 연극제에 참여한 연극인들, 백서도 마찬가지다. 노란봉투캠페인을 담당하는 실무활동가 1인 체제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의 연대이다.

시민의 관심과 연대는 그 자체로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시민모금'의 도움을 받은 노동자들은 그 자신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 전달했다.

“후일 또 다른 지원 필요한 분 계시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저 또한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꼭 필요한 곳에 잘 쓰겠습니다. 한 가정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손배가압류가 해결되면 이 좋은 일에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과 시민 하나되기

그리고 이러한 동력은 손잡고에 노동현장과 시민사회가 '손배가압류'를 논의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지원을 받은 '노동자'들은 손잡고를 '손배문제를 논의하는 창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노동현장간담회'다.

이는 곧 '노동'과 '시민' 하나되기라는 노란봉투캠페인과 손잡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금씩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다. 이처럼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과 손잡고의 인적자원이 힘을 모아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해 펼친 활동들은 시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간적 한계, 아쉬움 남아

다만, 시간적 한계가 아쉽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효과적인 노동탄압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손배가압류를 없애는 데, 손잡고 1기가 활동한 지난 2년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더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노동탄압 수단 가운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손배가압류를 사측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 번 악용된 법제도는 다시 바로잡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손잡고는 향후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짧은 시간 펼쳤던 다양한 시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미 있는 시도들을 선별해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1) 모금활동

① 실무평가

- <노란봉투캠페인>과 같은 대규모 모금이 이뤄지지 않는 한 1기의 '긴급생계비지원'과 같은 활동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한 지원은 모금 특성상 기한에 정함이 있어 일시적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1기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모금계획을 모색해야 한다.
- 1기의 모금계획은 대부분 '사업비' 지출을 위한 모금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인큐베이팅 종료로, 손잡고가 향후 안정적인 운영과 사무국 구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모금계획도 필요하다

② 노동현장 평가 : 손배소송의 경우 법률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실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노동현장간담회에서는 추후 손잡고가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계획을 함께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③ 대안 논의

- 회원배가운동 : 안정적 운영 및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후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자적 CMS 개설 후 회원배가운동이 필요하다.
- 손잡고 내 모금을 위한 활동위원회 신설 등, 모금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2) 지원활동

① 실무평가

-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의 한계 : 손배가압류의 경우 대상자가 징계-해고, 벌금-구속 등 형사처벌을 경험한 바 있으며, 장기투쟁 중이어서 긴급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모금캠페인이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분야별로 세분화해 소액이라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 ② 노동현장 평가 :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 다만 재원마련이 어렵다면 쌍차, 유성 사례와 같이 지역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조직해 현장에 적극 연대하도록 손잡고가 다리역할을 해줄 수 있길 바란다.

- ### ③ 대안 : 긴급지원·직접지원에서 방향을 바꿔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법률지원 등 지원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와 연계하거나 자체지원 방법 설계해야 한다.

- 2015년 11월 성심수녀회와 함께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자녀(고등학생 5명, 대학생 2명) 학비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 아름다운재단 특별배분사업 지원 : 노란봉투캠페인 평가 후 추가지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배분팀 실무자 의견이 있었다.

3) 법제도개선활동

① 실무평가

- 입법활동과 관련해서는 은수미 운영위원과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담당활동가를 배치하지 않아 전문가간담회와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법안 발의 후 19대 국회논의 과정을 최대한 기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모의법정>은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이 기존에 없었고, 16팀 참가로 1회치고 참여도가 높다는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② 노동현장 평가 :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20대 입법 시 현장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 강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의법정>은 방청하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변론이 위로가 되었다는 감상과 더 많은 예비법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법정이 향후에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③ 대안 : 법제도개선활동을 2기 손잡고의 주요사업목표로 설정

1. 노동현장간담회-법제도개선위원회-법제도자문위원회 등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법률개선과 현장소통을 위한 논의구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노란봉투법>은 19대 입법이 사실상 좌초되었으나 국민모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법안을 만든 만큼 20대 국회에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

4) 학술연구

① 실무평가 : 손배가압류 피해자 실태조사와 백서를 제작했지만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손배가압류가 점점 더 쉬워지고(ex_ 피켓에 대한 명예훼손, 원청 이름 사용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인 기록 작업이 필요하다.

② 노동현장 : 유성기업지회가 두리공감과 함께 2012년 이후 매년 조합원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통해 파업 이후 징계-형사처벌-손배소 등이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해 인권위 제소,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손배피해사업장 대부분이 장기투쟁사업장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모든 사업장이 유성지회와 같은 지원받기는 어렵다. 가능하다면 손잡고에서 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③ 대안 :

1. 백서 활용은 무료배포를 통해 연구활동 등에 2차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손배현황은 민주노총과 협조하여 매년 집계함.

2.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심리치유센터와 연계방안이 있는지, 손배피해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논의

5) 문화캠페인

① 실무자 평가

- 접근성에 대한 지적 : 매 문화캠페인마다 회원알림을 문자와 이메일로 보냈는데, 행사 장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회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향후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손배증언대회(톡톡쇼)>는 대안매체를 통해 송출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연령대가 높은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손잡고 연극제> : 1회 수익금 500여만 원에 대해 연극제에 참여한 연극팀이 개런티를 포기하고 <손잡고 연극제> 2회를 위해 손잡고에 적립했다(서울시 기부금모집등록 통장에 입금). 제1회 결과물인 연극<노란봉투>는 2014년 ‘레드어워즈’ 수상에 이어 2015년 한국연극인협회 2015한국연극 베스트 7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 캠페인과 모금의 연계 필요 : <광장행사>, <손배증언대회>는 1회성 행사는 모금과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된다. 실제 손배증언대회 이후 온라인을 통한 CMS 회원가입이 늘었으나, 기부금모집기간이 끝나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 <1인퍼포먼스> : 당초 국회입법을 지원하는 퍼포먼스로 기획되었으나 정작 입법청원운동을 벌인 당시에는 단체 내부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② 노동현장 평가 : 문화캠페인이 서울이 주무대인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연극<노란봉투>와 같이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역순회도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③ 대안 : 추후 문화캠페인 기획에 대해서는 모금사업-노란봉투법 입법운동과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손잡고연극제 : 이양구 작, 창조컨설팅 주제로 2016년 12월 공연기획
2. 20대 국회를 앞두고 노조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필요

8. 활동일지

1) 2014년도

- 2014.01.24. 손잡고 초동 제안자 준비모임
- 2014.02.26. 손잡고 출범식.
- 2014.02.10. ~ 2014.05.31]노란봉투캠페인] 모금사업.
- 2014.03.14. 초동제안자 조찬모임, 향후 사업계획을 위한 체계와 조직정비.
- 2014.03.28. [운영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의
- 2014.04.08. [운영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의
- 2014.04.12. [기금심의위원회] 1차회의
- 2014.04.16.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2014.04.16. [법제도개선위원회] 1차간담회
- 2014.04.22. 지원사업 협조 요청을 위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 2014.04.22. [피해가구지원] 노란봉투캠페인 손배가압류 피해자 긴급생계의료지원 사업 공고
- 2015.04.25. [운영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의
- 2014.05.01.~ 2014.05.23. [피해가구지원] 손배가압류 피해자 긴급생계의료지원사업모집
- 2014.05.07. [보도자료] 손배·가압류 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
- 2014.05.09. [운영위원회] 4차 운영위원회의
- 2014.05.09. [법제도개선위원회] 2차간담회
- 2014.05.22. [운영위원회] 5차 운영위원회의
- 2014.05.23. [법제도개선위원회] 3차간담회
- 2014.06.02.~ 손잡고 담당활동가 채용.
- 2014.06.02.~ 2014.06.13. [기금심의위원회]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개별심사
- 2014.06.05. [법제도개선위원회] 4차간담회
- 2014.06.10. [노란봉투캠페인] 실무자회의
- 2014.06.13. [운영위원회] 6차 운영위원회의
- 2014.06.14. [기금심의위원회]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최종심사
- 2014.06.19. [보도자료] '<노란봉투캠페인>시민모금으로 손배 피해 137가구 5억2천여만원 지원'
- 2014.06.19. [1차배분사업결과발표행사]"노란봉투, 희망을 나누다".

2014.06.23.~ 2014.07.04. [피해가구지원사업] 기금지원대상자 개별연락.

2014.06.26. [운영위원회] 7차 운영위원회의

2014.06.27. [법제도개선위원회] 5차간담회

2014.07.07. [피해가구지원] 1차 손배가압류피해자긴급생계의료지원사업 기금집행.

2014.07.07. [보도자료]'노란봉투캠페인 참가 시민들' 2014 만해대상특별상 수상

2014.07.09. [법제도개선위원회] 6차간담회

2014.07.11.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7차간담회

2014.07.15. 손배현황 재조사 관련 민주노총 간담회.

2014.07.08.~ 2014.08.21. 2차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손배사업장 실태조사

2014.07.23. [운영위원회] 8차 운영위원회의

2014.07.29.~ 2014.9.29. [연재] 시민에게 보내는 '노란봉투 이야기'- 꽃피는학교
라혜원

2014.08.01. [법제도개선위원회] 입법안 관련 특강

2014.08.07. 서울시기부금품모집등록(노동법알리기학술문화캠페인)

2014.08.08. [법제도개선위원회] 8차간담회

2014.08.22. [운영위원회] 9차 운영위원회의

2014.08.25. [보도자료] 2014노란봉투캠페인 손배가압류 피해자긴급생계의료지원
사업(2차) 접수

2014.08.25.~ 2014.10.2. 2차 손배가압류 피해자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모집

2014.09.01. [법제도개선위원회] 9차간담회

2014.09.19. [운영위원회] 10차 운영위원회의

2014.09.19. [법제도개선위원회] 10차간담회

2014.09.22. 신종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을 위한 세미나 [1차세미나] 무
엇이 문제인가?

2014.09.24.~ 2014.10.10. [기금심의위원회] 2차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개별심
사

2014.10.06. 신종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을 위한 세미나 [2차 세미나] 한
국 현대사와 노동자의 삶

2014.10.12. [기금심의위원회] 2차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최종심사

2014.10.16. [운영위원회] 11차 운영위원회의

2014.10.17. [보도자료] <노란봉투캠페인>시민모금으로 손배가압류 피해자 2차 지
원, 총192가구에 6억4665만2736원

2014.10.20.~ 2014.10.23. [피해가구지원] 기금지원대상자 개별연락.
 2014.10.24. [피해가구지원] 2차 손배피해자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기금집행.
 2014.10.27. 신종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을 위한 세미나 [3차 세미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2014.10.31. [입법공청회]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2014.11.07. [논평] 벼랑 끝에 몰린 손배소 피해 노동자의 손을 잡을 때다
 2014.11.09.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간담회
 2014.11.20. [운영위원회] 12차 운영위원회의
 2014.11.25. [법제도개선위원회] 노조법개정안 최종 문구 1차 심의회의
 2014.11.25. ~ 2014.12.14. 손잡고 연극제 : '노란봉투' 극단해인, 혜화동1번지 5기동인
 2014.11.27. [기자회견] 현대차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 노조탈퇴강요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2014.12.09. [법제도개선위원회] 노조법개정안 최종 문구 2차 심의회의
 2014.12.17. [활동가편지] 손잡고연극제, 첫 작품 연극 <노란봉투>의 막을 내리며.
 2014.12.22. [운영위원회] 13차 운영위원회의
 2014.12.23. [노동현장간담회] 1차 간담회
 2014.12.30. [손잡고연극제] 합동평가회

2) 2015년도

2015.01.09. [법제도자문위원회] 1차 자문위원회 간담회
 2015.01.13. [노동현장간담회] 2차 간담회
 2015.01.19. [노란봉투캠페인] 중간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2015.01.20. [운영위원회] 14차 운영위원회의
 2015.01.20. [모의법정] 사전설계를 위한 준비회의. 집행위원회 구성
 2015.01.26. [보도자료] 손배가압류 문제, 노조법 개정으로 풀다
 2015.01.28. [모의법정] 집행위원회 구성.
 2015.01.28.~ 2015.04.06.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운동
 2015.02.03.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02.12. [기타지원] 손배피해 해고자가구 떡국바구니 나눔행사
 2015.02.13. [연대] 스타케이칼 고공농성장 지지방문

2015.02.24. [노동현장간담회] 3차 간담회

2015.02.26. [활동가편지] 노동과 시민이 하나 된 '손배가압류 잡자' 캠페인 1년

2015.03.05. [릴레이1인시위] 쌍차문제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시민 릴레이 캠페인

2015.03.05. [기자회견] SK-LG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해결 및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03.09. [기자회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5.03.18. [릴레이1인시위] 쌍차문제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시민 릴레이 캠페인

2015.03.19. [운영위원회] 15차 운영위원회의

2015.03.21. [연대] 스타케미칼 해복투 고공농성 300일 문화제

2015.03.26. [노동현장간담회] 4차 간담회

2015.03.30. [강연-홍종인] 유성기업-창조컨설팅-유성노조 민주노조파괴시나리오

2015.04.02. 손잡고-민주노총 손배가압류문제개선을 위한 법률활동설명 간담회.

2015.04.03. [영상] 여기서사람있어요_스타케미칼 편 3부작

2015.04.05.~2015.05.12. 연극 <노란봉투> 재공연.

2015.04.06.~2015.05.06. [이벤트] 고공에 있는 노동권 지킴이 응원 손편지 쓰기

2015.04.07. 노란봉투법 19대국회 발의(은수미 대표발의)

2015.04.08. [연대] 상신브레이크지회 손배소2심 선고재판

2015.04.09. [연대] 생탁 노숙농성현장 지지방문 및 투쟁기금전달

2015.04.13. [릴레이1인시위]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한 복귀를 바라는 시민 릴레이 캠페인

2015.04.15. [활동가 편지] 연극 노란봉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15.04.16. [릴레이1인시위]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한 복귀를 바라는 시민 릴레이 캠페인

2015.05.07. [운영위원회] 16차 운영위원회의

2015.05.08. [조문] 생탁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고 진덕진 빈소 조문.

2015.05.20. [연대] 고공농성지킴이 손편지 전달/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 병문안

2015.05.20. [모의법정]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경연대회 개최공고.

2015.05.20.~ 2015.06.10. [모의법정]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경연대회 접수

2015.05.21. [손배피해증언대회] 제작 기획회의.

2015.05.26. 스타케미칼 굴뚝농성 1년, 연극인들과 함께하는 대학로 문화제.

2015.05.29. [손배피해증언대회] 예산설계 및 구성회의.

- 2015.06.03. [활동가편지] 스타케미칼굴뚝농성 1년, 연극인과 함께한 대학로 문화제 뒷 이야기
- 2015.06.03. [릴레이1인시위]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한 복귀를 바라는 시민 릴레이 캠페인
- 2015.06.10. [모의법정] 문제출제위원회 회의.
- 2015.06.11. [모의법정] 접수마감 및 예선안내 / ILO 사무총장상 추진을 위한 공문전달
- 2015.06.12. [연대] 스타케미칼 해복투 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 투쟁기금전달
- 2015.06.16. [노동현장간담회] 5차 간담회
- 2015.06.19. [모의법정]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및 대회규정 공고
- 2015.06.20.~ 2015.07.15. [모의법정]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변론서 접수
- 2015.06.25. [노란봉투캠페인] 실무회의
- 2015.07.03. [영상_여기 사람있어요] 생략 3부작
- 2015.07.06. [릴레이1인시위]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한 복귀를 바라는 시민 릴레이 캠페인
- 2015.07.07. [노란봉투캠페인] 사업기한연장신청 제출.
- 2015.07.07. [운영위원회] 17차 운영위원회의
- 2015.07.08. [연대]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마무리 현장 방문
- 2015.07.16. [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의(1차)
- 2015.07.18. [광장행사] 손배소가압류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란봉투콘서트
- 2015.07.18.~ 2015.07.30 [퍼포먼스] 노란봉투법 알리기 릴레이 퍼포먼스
- 2015.07.20.~ 2015.08.03. [모의법정] 서면심사위원회 개별심사
- 2015.07.31. 서울시기부금모집등록마감, 모집종료 홈페이지 게시.
- 2015.08.04. [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의(2차)
- 2015.08.04. [모의법정] 서면심사회의
- 2015.08.05. [모의법정]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결과발표.
- 2015.08.06. 서울시기부금품모집결과 홈페이지 공지.
- 2015.08.13. [노란봉투캠페인] 손잡고-아름다운재단 간담회
- 2015.08.17. [보도자료] 47억, 70억, 158억... 수천억대의 손배청구, 어떻게 결정되나?

2015.08.19. [노동현장간담회] 6차 간담회

2015.08.20. [법제도자문위원회] 2차 자문위원회 간담회

2015.08.22. [모의법정]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결선.

2015.08.24. [활동가편지]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경연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2015.08.25. [연대] 동양시멘트지부 상경투쟁 현장 간담회 및 투쟁기금 전달

2015.08.31. 정보공개청구 2013년, 2014년 인지대의 수입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2015.08.31. [논평] 상신브레이크 파업 “손실없음”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5.09.01. [운영위원회] 18차 운영위원회의

2015.09.07. [논평] 쌍용차 손배소, 원고 ‘대한민국(경찰)’ 먼저 철회하라

2015.09.09. [노란봉투캠페인] 실무회의

2015.09.10. [법제도자문위원회] 3차 자문위원회 간담회

2015.09.11. [연대] 쌍용차 김득중지부장 단식농성 현장지지방문 및 투쟁기금전달

2015.09.15. [노동현장간담회] 7차 간담회

2015.09.16. [릴레이1인시위] 쌍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 릴레이1인시위

2015.09.16. [기자회견]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2015.09.16. [기자회견]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5.09.16. [실태조사] 2014노란봉투캠페인 지원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5.10.08. [영상_여기사람있어요] KEC 2부작

2015.10.12. [보도자료] 노란봉투캠페인 이번엔 국회의 문을 ‘톡톡’

2015.10.13. [손배피해증언대회] 방송제작 편성회의

2015.10.14. [노동현장간담회] 8차 간담회

2015.10.15. [활동가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2015.10.19. [손배피해증언대회] 톡톡쇼 본방송 녹화

2015.10.20. [운영위원회] 19차 운영위원회

2015.10.22. [보도자료]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개최

2015.10.22. [활동가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2015.10.22. [손배피해증언대회] 톡톡쇼 녹화분 국민TV 방송

2015.10.27. [토론회]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2015.10.28. [활동가편지]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현장 스케치

- 2015.10.30. [백서] 손해배상과 가압류 백서
- 2015.11.01. [연대] 생탁 고공농성 200일 현장방문
- 2015.11.04. [노동현장간담회] 9차 간담회
- 2015.11.17. [연대]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
- 2015.11.19.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2015.11.24. [연대] 고려수요양병원지부 결의대회 방문 투쟁기금 전달
- 2015.11.26. [연대] 동양시멘트지부 상경투쟁 100일 문화제
- 2015.11.30. [운영위원회]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 활동 종료.
- 2015.12.01. 손잡고 2기 준비를 위한 임시대표단 출범(은수미, 서해성, 조국)
- 2015.12.10. [기자회견] 대전고법은 노동자 피말리는 손해배상! 용납하지 마라!
- 2015.12.10. [노동현장간담회] 10차 간담회
- 2015.12.22. [기자회견] 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 노동자들의 삶을 빼앗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 2015.12.28.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3) 2016년도

- 2016.01.10. [노란봉투캠페인] 손배소가압류피해자 긴급생계의료지원 및 법률개선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2016.02.01. [논평]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역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2016.02.02. [기타지원] 손배피해 해고자 가구 떡국바구니 나눔 행사
- 2016.02.04. [연대] 생탁 손배소 1심 선고재판.
- 2016.02.25. [연대] KTX여승무원과 함께하는 연대의밤
- 2016.02.26. [활동가편지] 손잡고, 2살이 되었습니다.
- 2016.02.26. [연대] 고려수요양병원지부 후원주점
- 2016.03.10. 손잡고 2기준비를 위한 임시대표단 2기상임대표로 배춘환 회원 추천.
- 2016.03.12. 손잡고 2기준비를 위한 임시대표단-신임 상임대표 예정자 배춘환 임시회의 및 2기 운영위원 추천(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서해성, 안진걸, 윤지영, 은수미, 이남신, 조국, 좌세준 이상 10인)
- 2016.03.17.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조문
- 2016.03.18. [보도자료]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 2016.03.19. [활동가편지] 동료를 잃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2016.03.21. [기자회견] 현대기아차-우성기업의 노조탄압이 고 한광호 열사를 죽였다.
- 2016.03.22. [연대] 동양시멘트 투쟁승리 "400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 2016.03.23. [임시회의] 2기 운영위 예정자 1차 임시회의 / 총회결정
- 2016.03.29. [토론회_유성공대위]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
- 2016.04.01. [연대] 동양시멘트 후원주점
- 2016.04.07. [임시회의] 2기 운영위 예정자 2차 임시회의 / 총회의장 이수호 공동대표 선출
- 2016.04.14. [공고] 제1회 손잡고 회원총회 공고
- 2016.04.19. [노동현장간담회] 11차 간담회
- 2016.04.20. [임시회의] 2기 운영위 예정자 3차 임시회의



손잡고 1기 결산보고

1. 손잡고 CMS 모집 및 회비 사용에 대한 보고

※ CMS 모집과 회비 사용에 대한 증빙내역과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CMS 회비 적립분에 대해 평화박물관으로부터 아직 이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후 2기에서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회비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이관이 마무리된 후 회비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를 홈페이지 및 메일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인큐베이팅 경과보고

- ① 손잡고 CMS 후원모집 : 2014년 손잡고 출범 이후 평화박물관으로부터 ‘손잡고’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CMS 프로그램 및 계좌사용을 지원받음.
- ② 계좌명의 : 평화박물관 상임대표 이해동 대표명의(주거래은행 국민은행)
- ③ 손잡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횟수 : 1회
 - 2015년 12월 22일, 평화박물관 측으로부터 CMS 회비 일부를 은수미 운영위원을 경유하여 이체받음 : 금액 17,583,029원
 - 이체계좌 : 상임대표 조은 명의 손잡고 운영비 통장
(주거래은행 신한은행 100-030-200970)
 - 회비정산 및 입출내역, 영수증빙서류 등은 아직 이관 받지 못함.
 - 위 지급받은 회비 17,583,029원은 지급시점인 2015년 12월 22일 이후 운영에 사용되고 있음. 현재 운영비통장 잔액 : 1.339.694원.
- ④ CMS 미지급분 : 2015년 12월분 이후 최근까지 5개월 치 회비

2) 향후계획

- ① 회비에 대한 추후 결산보고를 완료하기 위해 손잡고 조직 내 TF 구성
- ② 손잡고 명의 CMS 개설 : 총회가 끝나고 대표자변경 뒤 CMS 개설예정(5월 내), 회원 동의절차 거친 후 이관할 계획.
- ③ 평화박물관 명의의 손잡고 CMS 계좌 해지 시점 : 2016년 5월부터 한 달간 해지공고 후 6월 1일자로 자동종료 예정.

- ④ CMS 미지급분 정산 : 평화박물관 명의의 손잡고 CMS 계좌 해지와 함께 정산 후 지급 받을 예정.
- ⑤ 회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 : 2015년 12월 이체된 일부 CMS 회비 수입에 대한 증빙내역을 포함해 전체 회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해 확인 후 손잡고 운영비계좌 결산과 함께 보고

2. 손잡고 1기 수입 보고(* 2016년 3월까지 정산)

항목/현황	내용	금액	통장구분
사업비통장 / 지출완료	노란봉투캠페인 1차사업 (긴급생계의료비지원)	1,179,358,190원	신한 손잡고 100-029-978026
사업비통장 / 지출완료	노란봉투캠페인 2차사업 (법제도개선활동)	138,500,000원 +102,415원(이자발생)	신한 손잡고 100-029-977885
상금통장 / 미사용	만해상 상금	50,000,000원 +55,648원(이자발생)	신한 손잡고 100-030-265015
기부금모집통장 / 미사용	서울시기부금품모집등록 (모집기간 : 2014.08.11~2015.07.31)	58,684,966원	신한 손잡고 100-029-977980

3. 손잡고 1기 사업비계좌 지출보고

■ 노란봉투캠페인 사업비 결산보고

1) 긴급생계의료비지원사업

- 신한 손잡고 100-029-978026
 - 아름다운재단 지원금액 모두 집행 (추후 발생한 은행이자 포함)
- 총 1,179,358,190원

2) 법제도개선사업

- 신한 손잡고 100-029-977885
 - 아름다운재단 지원금액 138,500,000원 가운데 126,477,250원 집행
 - 잔액 12,022,750원과 은행이자 102,415원을 더한 미집행환급금
- 총 12,125,165원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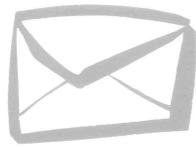
* 법제도개선사업 미집행환급금(사업비잔액) 아름다운재단에 반납

법제도개선사업은 지정사업비통장(신한 100-029-977885) 내 미집행지원금 12,125,165원이 남았으며, 이에 대해 아름다운재단명의로 환급계좌로 전액 계좌이체했다.

- 반납계좌 : 아름다운재단 하나은행 162-910010-67504

항목			금액(원)			
			수익 (지원+지원 외)	지출	잔액	비고
긴급 생계의료 비 지원 사업	피해 직접 지원	1차지원	519,285,694	519,285,694	0	
		2차지원	646,652,736	646,652,736	0	
	소계(1)		1,165,938,430	1,165,938,430	0	
	사업 진행 (1차)	인건비외	10,000,000	8,558,890	1,441,110	
		이자 발생	18,831	0	18,831	
	소계(2)		10,018,831	8,558,890	1,459,941	
	사업 진행 (2차)	인건비 외	0	4,860,870	-4,860,870	기금입금 전 시작된 사업
		불용액 지원	3,400,929	0	0	
	소계(3)		3,400,929	4,860,870	-1,459,941	
	항목계(1) = 소계(1)+(2)+(3)			1,179,358,190	1,179,358,190	0
법률 개선 활동	모의법정		13,000,000	12,701,380	298,620	
	전문가 간담회	손잡고 법제도 개선 위원회	4,333,800	4,333,800	0	기금입금 전 시작된 사업
		손잡고 법제도 자문 위원회	2,059,140	2,045,850	13,290	
	입법공청회		2,107,060	2,107,060	0	
	토론회	노동현장 간담회	3,500,000	3,212,960	287,040	
		손배증언 대회	21,500,000	18,826,310	2,673,690	
학술 및 연구 조사	백서		10,000,000	10,000,000	0	연구용역
	실태조사		10,000,000	10,000,000	0	연구용역

홍보 를 위한 문화 공연	연극제	15,000,000	15,000,000	0	극단해인 (용역사업)
	청계광장행사	30,000,000	30,000,000	0	농담기획 (용역사업)
	1인퍼포먼스	10,000,000	10,000,000	0	
	1차 배분결과발표행사	3,000,000	2,015,430	984,570	기금입금 전 시작된 사업
기타	홍보	12,500,000	5,385,800	7,114,200	
	예비비	1,500,000	848,660	651,340	
항목계(2)		138,500,000	126,477,250	12,022,750	
이자발생		102,415	0	102,415	
미집행환급금		138,602,415	126,477,250	12,125,165	



총회 안건 상정 및 승인

1. 정관 개정 승인 건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라 한다.

제2조 [목적]

손잡고는 노동쟁의 등을 원인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손배 가압류'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구제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시민모금과 사회 여론형성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손잡고 모임의 목적인 '손해배상' 사건과 '가압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목적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

제3조 [구성]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유로운 개인과 단체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2. 손배 가압류 관련 모금
3. 손배 가압류 관련 피해자 지원 사업
4. 손배 가압류 관련 사회 의제화 사업
5.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제고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과 위 ①항의 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손잡고의 목적 달성 및 사업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제5조 [소재]

손잡고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① 손잡고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안자(발기인)로 참여하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회원이 된다.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조항의 제목을 '회원 가입'에서 '회원'으로 수정함.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손잡고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손잡고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회원의 권리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표준정관'에 준하여 명확히 함.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손잡고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후원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 전 1호 “손잡고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는 회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의무 조항을 비영리민간단체 ‘표준정관’에 준하여 명확히 함.

제9조 [자격 상실, 탈퇴]

-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손잡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회원 자격 상실과 탈퇴에 관한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표준정관’에 준하여 명확히 함.

제3장 기관

제1절 총회

제10조 [지위]

총회는 손잡고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제3장 ‘기구’를 ‘기관’으로 수정하고, 제19조 총회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

제11조 [구성]

총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

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총회는 출석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참석 회원들의 의결로써 의장을 선출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총회 소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총회 소집의 특례 조항을 제4항으로 규정함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3.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손잡고의 해산
 5.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감사 선출'을 추가

제13조의 2 [임원의 해임] 대표, 감사,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손잡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손잡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

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관이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자구 수정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와 5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며,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운영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 내에 활동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명확히 함

제16조 [임기]

- 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조항의 명칭을 '의결'에서 '의결정족수'로 수정

제19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의결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조항의 명칭을 '권한'에서 '의결사항'으로 수정

제3절 활동위원회

제20조 [지위]

- ① 손잡고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② 각 활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위원회는 손잡고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④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활동보고와 계획을 제출한다.

제21조 [구성]

- ①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활동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소통위원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손잡고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자구 수정

제22조 [임기]

활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자구 수정

제4절 대표, 감사, 사무국 등

제23조 [대표]

- ① 대표는 손잡고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 ③ 공동대표는 각자 손잡고를 대표한다. 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대표 및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명확히 규정

제23조의 2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감사의 선출 절차, 감사의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

제23조의 3 [사무국]

- ① 손잡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종사자를 포함한 구성원과 조직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사무국 설치 근거규정,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인사규정 근거 규정을 신설함.

제24조 [자문위원]

손잡고는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와 단체를 자문위원

으로 두어 손잡고의 활동에 대한 협력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자구 수정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25조 [지역조직 등]

- ①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의 조직과 구성은 내규로 정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지역조직과 회원모임(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회원모임)의 근거 규정을 두되, 그 조직 및 구성은 내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활동 보장

제26조 [부설기관]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 [회계 연도]

손잡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과 결산]

- 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② 대표는 손잡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 까지 공개해야 한다.

▲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예·결산 관련 감사의 의무 등 자구 수정

제29조 [수입]

손잡고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단,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모금은 사업비로 하되, 운영비는 별도 모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해산

제30조 [해산 사유]

손잡고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1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2조 [잔여 재산의 귀속]

손잡고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손잡고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3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6. 4. 15. 개정]

1.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6.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표 선출의 건

1) 2기 상임대표 : 배춘환 회원(2014년 6월 가입)

* 회원대표 : '시민모임'으로서의 정체성.

2) 추대근거 : 2016년 3월 10일 1기운영위원회 공지 <2기 출범 건>

“임시대표 은수미입니다. 저를 포함 조국, 서해성 등 3인 임시대표단은 손잡고
를 출범시킨 산파이자 초기 회원이신 배춘환님을 손잡고2기 대표로 모시기로 했
습니다.”

1기운영위원 전원 동의

3. 운영위원 선출의 건

1) 2기 운영위원 구성 : 배춘환 상임대표 포함 10인

배춘환, 박래군(인권재단사람), 박병우(민주노총), 서해성(작가), 안진걸(참여연
대), 윤지영(변호사), 은수미(19대 국회의원), 이남신(한국비정규직센터), 조국(서울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좌세준(변호사)

2) 운영위원장 : 정관에 따라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됨.

4.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 건

1) 2016년 주요 활동 목표

- 입법활동 :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 입법을 위한 활동위원회 구성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 운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 활동(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
- 회원활동 : 회원.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 배가 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2) 2016년 주요 활동 목표에 따른 사업계획안

- 활동목표 내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 2기 운영위원회에 일임함

사업구분		기존	2기(가안, 추가논의 필요)
법제도개선	법 제 도 개 선 위	'노란봉투법' 입법(19대 발의)	20대국회 노란봉투법 입법
	법 제 도 자 문 위	인지대 헌법소원, 개정안 논의	국가손배, 업무방해죄(가처분, 가압류) 등 노조법개정 외 법률개선 논의
	노 동 현 장 간담회	현장 소통	계속
피해자지원	법률 및 실무	자문단 연결, 기자회견, 성명 등	계속
	생계지원	노란봉투캠페인 성심수녀원	성심수녀원 학비지원은 지속 협조 가능
홍보 문화공연	고정행사	손잡고연극제, 모의법정	<추가> 노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획홍보	시사인, 한겨레토요판, 기고(운영 위, 활동가)	언론이나 펀딩을 통한 홍보 기획 필요
	일상홍보	홈페이지, 활동가편지(웹레터 대응 매월발송), SNS관리(페북 3,600명, 트윗 800명)	실무적 한계(실무자 추가 후 일상홍보방식 변화 필요)
회원사업	회원배가	강연, 인터넷, 언론을 통한 홍보, 노란봉투참가자 유입 등	회원배가운동 필요
	회원사업	없음(몇 번 시도했으나 실패, 손잡고 회원은 전국구, 특성 고려)	총회, 정기회원모임, 회원활동 지원 필요
모금사업	캠페인	노란봉투캠페인	<추가> 노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과 함께 모금캠페인 추진

3) 서울시기부금모집등록 사업 : 노동법 알리기 학술 문화공연

① 사업기한 : 2016년 7월 31일까지로 신고됨

▶ 사업기한 연장신청 : 대표변경신청 및 주사무소 변경 후 사업기한연장 추진

* 1년 연장 : 2017년 7월 31일까지

② 사업내용

사업명	제2회 손잡고연극제
내용	- 참여 : 작가 - 이양구 / 연출 - 박해성 - 가제 : 창조컨설팅 - 시기 : 2016년 12월 3주간 / 장소 : 혜화동1번지 - 제1회 당시 연극 <노란봉투>팀이 티켓수익 약560여만원을 2회를 위해 적립함
사업명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내용	- 참여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협의 필요 - 시기 : 제1회는 5월 공고 / 6월 문제출제 / 7월 서면심사 / 8월 본 대회 순으로 진행
사업명	법제도개선위원회
내용	- 참여 :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연임여부 확인 필요 - 20대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논의를 위한 준비

4) 문화공연 및 캠페인 : 노동의 봄

① 일시 및 장소 확정 : 5월 22일(일) 오후4시 반줄(종로1가)

② 공연소개

“노동의 봄 : 가족”
 노동 : 사전적 의미 1. <경제>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적 의미 2. 몸을 움직여 일을 함
 =>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

③ 취지 : 이해, 공감, 방식에 대해 열어둔다. ‘노동’ 사회 속에서 부여된 이미 지나 강요된 텍스트가 아닌 사전적 의미만을 던져둔 채 각자가 받아들이는 ‘노동’을 이해와 공감의 출발점으로 삼고, 시민이 ‘노동’을 이해하고 공감하

고 함께할 방식을 편안히 생각하도록 모든 것을 열어둔다. 새로운 손잡고의 시작도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스며드는 방식으로 알린다.

④ 형태 :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 “공연장 분위기, ex) 응답하라 1988”

⑤ 대상 : 120명(손배대상자, 회원 구분없이 가족과 함께 초대)

- 사전 사연접수(가족이야기) : 공연에 소개

⑥ 함께하는 사람들

- 기획, Concert/MC 조동희
- Piano 박용준
- Guest 강승원
- 일러스트 작가 : 섭외 중
- 영상제작 : 허진혁, 김나래, 송윤혁

⑦ 예산

항목		시기	금액(원) 책정 예산	산출근거/비고
노동의 봄	공연기획	5월 22일 (일) 오후4시	13,000,000	- 장소 대관 : 1,000,000 - 기획 : 2,000,000 - 케이터링 : 1,000,000 - 일러스트 : 1,000,000 - 영상 : 1,000,000 - 음향 : 1,000,000 - 공연팀 : 5,000,000 - 진행비 : 1,000,000
총계			13,000,000	

5. 2016년 사업예산안 승인 건

1) 운영비 재정상태 : 운영비통장 잔액 1,339,694원

- 5월 내 CMS 개설 후 회원이관작업, 안정적 운영까지 시일이 필요함
- 또한 평화박물관과의 미지급 회비 이관이 6월로 미뤄짐.
- CMS로부터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
- 현 운영비 재정상황으로는 5월 활동가 인건비, 활동비에 대한 지급도 어려움.
- 최소 3개월 치 손잡고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원 확보 시급.

2) 운영 및 사업비 자원확보 방안

- 안정적 재정 확보까지 만해상상금 5,000만원을 운영과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예산기한 : 2016년 4월~ 7월까지
- 이후 추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자원확보 후 2기운영위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항목		시기	예산(원)	산출근거/비고
운영비	주사무소 임대료	16.04.26 ~16.07.26	13,000,000	-임대보증금 : 10,000,000 -월임대료 : 1,000,000*3개월 = 3,000,000
	사무집기	16.04.26 ~16.05.30	6,000,000	-책상/의자/회의테이블 : 2,000,000 -컴퓨터 : 3,000,000 -복사기 : 500,000 -기타 사무용품 구비 : 500,000
	인건비	16.05.01 ~16.07.30	4,500,600	-1,500,200*3개월
	활동비	16.05.01 ~16.07.30	600,000	-200,000*3개월
	경상비	16.05.01 ~16.07.30	1,000,000	-통신료 : 100,000 -관리비 : 600,000 -기타 : 300,000
	기타잡비	16.05.01 ~16.07.30	1,000,000	
사업비	노동의봄	2016.04 ~2016.05	13,000,000	- 장소 대관 : 1,000,000 - 기획 : 2,000,000 - 케이터링 : 1,000,000 - 일러스트 : 1,000,000 - 영상 : 1,000,000 - 음향 : 1,000,000 - 공연팀 : 5,000,000 - 진행비 : 1,000,000
	예비비	16.05.01 ~16.07.30	1,300,000	* 사업비의 10%
총계			40,400,600	만해상 상금 계좌 : 100-030-265015

3) 서울시 기부금품모집계좌 재정에 대한 사업예산안

항목		시기	금액(원) 책정 예산	산출근거/비고
사업비	손잡고 연극제	2016년 11월~12월 3주	25,000,000	-장소대여 : 30*21회=2,100,000 -작가료 : 2,000,000 -기획연출료 : 2,000,000 -출연료 : 8,700,000 -무대소품 : 3,000,000 -극영상 : 4,200,000 -진행비 : 1,500,000 -홍보비 : 1,500,000
	모의법정	2016년 5월~8월	13,000,000	-참가자 상금 : 4,000,000 -출제자 및 법조인 사례비 (12명*40만원) : 4,800,000 -장소대여비 : 1,200,000 -진행비 : 1,500,000 -홍보비 : 1,500,000
	법제도개선 활동	2016년 5월~2017 년 5월	6,000,000	-발표사례비: 300,000*10명 = 3,000,000 -회의진행비 : 1,000,000 -자료집 : 2,000,000
	홍보비		6,000,000	-연극제 동영상제작 : 1,500,000 -리플렛 제작 : 1,000,000 -메일링, 문자발송, 홈페이지 : 500,000 -기념품 제작 : 2,000,000
	예비비		3,684,966	
운영비	인건비		5,000,000	모집금액 10% 이내
총계			58,684,966	모집계좌 : 100-029-977980

6. 기타 안건에 대한 승인



손잡고 자료집

손잡고 제1차 회원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6. 04. 25.

발행처 손잡고(공동대표 : 이수호)

담 당 윤지선 활동가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Copyright ©손잡고, 2016

대표전화 02-725-4777

홈페이지 www.sonjabgo.org
